

# Sermon of the Week:

## The Faith that Lives in Christ's Finished Work



**Passage:** 1 Peter 2:24-25 (ESV)

**Date:** November 2, 2025

**Pastor:** Dong Suk Chung

Isaiah 53 is a prophecy from God given to the prophet Isaiah, before Jesus came to this world, foretelling that the Messiah would come to this earth. According to this prophecy, the Lord came in the flesh,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Through this, He solved every problem—our original sin, sins we commit, the struggles of daily life, illness, and human existence itself. After Jesus' resurrection, we no longer live in an age of works but in an age of faith. Just as we became sinners through Adam's bloodline without any effort or merit of our own, we have now become righteous—without our efforts—throug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Every issue of sin, transgression, peace, and health has already been resolved for us through the salvation Christ achieved by His death and resurrection.

Salvation is not found by searching within ourselves to see if sin is gone. If all our sins were placed inside a book and that book was burned, the sins would disappear along with the book. Likewise, our sins have disappeared in Jesus. Christian faith is not about finding sinlessness within ourselves, but rather believing that our sins were washed away in Jesus. Therefore, we must believe the Word of God and accept our position and identity as righteous in Him. We are saved by faith, not by how we feel inside ourselves, and we live by this Word.

If something within you resists this truth, then reject those feelings and declare that the Word, which says you are a child of God, is true. The Lord rejoices when we do so. As we

increasingly confess and receive the Word of God, the powers of disease, impurity, anger, and the devil will retreat from our lives.

Humanity's greatest problem is that through eating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 "self" was born. When the self is alive, that person hears the Word but believes in their own thoughts instead. But when that self has died, the Word comes to us as life. We need a faith that begins from death, not a faith in which the self remains alive. When we truly believe that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are our death and resurrection, we can gradually put our "self" to death. Because in Jesus we have abundant life, joy, peace, and satisfaction, we come to choose to live by His life rather than by our flesh. Each time we deny ourselves, the grace of God fills us more abundantly.

When we struggle to believe the Word, we must realize that the cause is the poison of Satan that entered through the fruit of good and evil. We do not need to trust the thoughts that come from that poison. We must boldly declare that the "self" who ate that fruit already died on the cross and that we are now children of God. We must resist every thought, feeling, and judgment that comes from the devil.

It is foolish to say, "I'll take medicine once I'm healed." You must take the medicine first to be healed. It is the same order in the Bible: "with the heart one believes and is justified, and with the mouth one confesses and is saved" [Romans 10:10]. When we believe, Satan will flee, and things will happen according to our faith. Regardless of what others say, when we confess the truth of Scripture with our mouths, we experience death of the self, and as much as we die, the Holy Spirit gives us greater assurance.

The spiritual realm is like the second

floor above the first floor of the physical world. The second floor—the spiritual realm—cannot be seen, but it is the world of truth already accomplished through the cross. So if we face sickness in the first-floor world, our prayer should not be "Please heal me," but "Lord, help me stand in the finished work of healing You provided at the cross." When we confess and believe that we are already children of God, the truth that Christ has accomplished begins to work within us, gradually driving back the forces of darkness. People of faith must fight this spiritual battle, and in this fight, the Lord will give victory. To those who overcome, the High Priest in the order of Melchizedek will give bread and wine.

Trying to fix our own problems is always a rough and painful road. But the way prepared by the Lord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is like a train running smoothly on well-laid tracks. His way is our way. It is not the path of self-rule and judgment born from eating the fruit of good and evil. It is the path where His death becomes our death, His resurrection our resurrection, and His experience our experience. Then our prayers will no longer spring from selfish desire, but from surrender—confessing, "There is nothing I can do," and praising and thanking the Lord instead. The true beginning of faith is Jesus Christ Himself.

As we enter daily into the death of the cross, the Lord who lives within us will overflow and resolve every problem before us. Our only task is to rest in Him. No matter how great the mountain of problems may seem, may we have the faith to believe and entrust all to Jesus—and through that faith, bring glory to the Lord.

# 심니소식

## 나성교회



## 심성교회

11월 16일, 2025년

NASUNGCHURCH.NET

81 호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25절

**날짜:** 11월 2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죄, 지은 죄, 생활의 문제, 질병 문제, 인간 존재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는 행함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 노력과 근거도 없이 아담의 혈통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의 문제, 죄악의 문제, 평화와 건강의 문제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안에서 죄가 없어졌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책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넣어 불태웠다면, 죄가 없어진 곳이 책 속인 것처럼 우리의 죄도 예수님 안에서 다 씻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죄가 없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죄가 없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의인이 된 위치와 신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반발이 있다면 그 감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참

임을 시인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질병, 음탕, 혈기, 마귀가 물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을 믿지만, 내가 죽은 사람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와집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 믿어지면 점점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풍성하시고 기쁨, 평안, 만족하시기에 내 육은 쉽게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 원인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탄의 독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독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으며, 이미 십자가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큰 소리로 외치며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 판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병이 다 나으면 약을 먹겠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약을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믿으면 사탄이 물러갈 것이며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성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나에게 죽음의 경험이 일어나고 죽어지는 만큼 성령님께서 확신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마치 1층인 육의 세계 위에 있는 2층과 같습니다. 2층인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1층인 육신의 세계에서 병이

들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병을 고치신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시인할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여 어둠의 세력이 점점 물러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전쟁을 해야 하며, 이 싸움을 싸울 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께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고치려는 길은 늘 험준한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닦아놓으신 길은 잘 깔린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주님의 길이 내 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판단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주님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닌 '나는 할 일이 없다'를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넘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태산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넘기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 중보기도

##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 고원창 집사**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성희 자매** 1여선교회 교회에서 넘어져 팔의 접골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세리토스 구역)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항암치료와 수술, 회복과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으로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 김옥경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윤춘자 집사** 81세, 양주구역 허리협착증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형로 집사** 윤춘자 집사 남편 전립선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섬망증상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2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

---

---

---

---

---

---

---

---

---

2.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

---

---

---

---

---

---

---

---

---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

---

---

---

---

---

---

---

---

## 주간소식

- **계시록 말씀 사경회가 이번주 11월 19일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감사이신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동참하시고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는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 그리고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 요한계시록 말씀사경회 일정

수 (11/19) - 금 (11/21): 저녁 7시 30분  
토 (11/22) 1부: 오전 10시  
토 (11/22) 2부: 저녁 7시 30분  
주일 (11/23)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주일 1부와 2부 말씀은 같습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남녀 선교회 회장들께서는 **2025년 선교회 결산보고서를 12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플러톤 2구역 소속이며 3남선교회 소속이신 김형철 형제님의 모친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한국에서 엄수됩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